

## 전남 동부권

# 여순사건 63주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10년전 이어 두번째 법안 발의 국회 계류중

여수지역사회研 시민 서명 운동 전개 추진

여순사건 63주기를 맞아 지역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월 여수 지역 출신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여수시 여수동 미관광장에서 열린 63주기 여순사건 추모제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지난 10년 전에 이어 두 번째 특별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아닌 우리 모두가 희생자라는 공동 의식을 갖고 법안 제정에 역량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특별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의 결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의 단일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현 진실화해위는 '이미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법안 제정까지는 힘들고 예상된다.

특별법안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진실화해위가 행안위에 여순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전수조사'해 끝났다고 주장하

고 있기 때문에 표류 중이다"며 "특별법을 통해 추가조사와 재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진실화해위는 신청자와 추가조사자에 한해서만 조사해 조사대상이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과 적재세력을 합쳐 모두 1102건에 그쳤다.

이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발발 1년 뒤인 1949년 11월 11일 자체 조사한 희생자 1만 1131명(추정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진실화해위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2007년 1월 30일 '신청인 조사'가 아닌 직권조사(전수조사)를 의미하는 기획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며 "하지만 정작 실행은 신청인 조사에 한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여순사건 유가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수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최소 1300여명에 이른데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24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조사 결론을 발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태홍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63)은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7월 '조사 결정문'이란 종이 한 장 달랑 던져놓고 지금껏 손을 놓고 있다"며 "유족들이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숨진 영령들의 원혼을 달랠 위령공원(위령탑) 하나 만들어 달라는 데 마지막 회회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논의가 표류함에 따라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최신예 고속경비함 신기해요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0일 국동항 해경부두에서 어린이 40여 명을 대상으로 함정 공개행사를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최신예 고속경비함 317함에 승선해 조타실과 인명구조용 보트 등을 견학하고 체험했다.

〈여수해경 제공〉

김대화 금호종합건설 회장

'고흥군민의 상' 수상



'고흥군민의 상'

사회복지 부문 수상  
자료 김대화(64·사진) (주)금호종합건설 회장이 선정됐다.

풍광면 출신인 김 회장은 건설사를 설립, 자수성가해 출향 항우들의 복지 향상을 물론 고향발전을 위해 수많은 기부와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재정 고흥군향우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민 화합에 앞장섰다. 시장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37회 고흥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iju@

## 광양항 컨부두 선석 확대 재배치

다선석 운영체계구축... 화물 반·출입 시간 단축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사별 다(多)선석 운영체계가 구축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이하 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1번과 2번 2개 선석을 운영하던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주식회사(HS-GT)가 2단계 1차 부두 4선석으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HSGT의 선석 운영규모가 2선석에서 4선석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양항 컨부두는 운영사별로 다선석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접차 들어나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분선 하역 작업과 함께 과다하게 소요되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을 위한

상하차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사는 HSGT의 선석 운영 규모 확대와 함께 컨테이너부두 1단계 1번과 2번 2개 선석을 운영하던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주식회사(HS-GT)의 동력을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등 부대시설물 개선사업도 추진해 서비스의 질 제고와 부두 운영경비 절감, 친환경 향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HSGT에서도 T/C를 12대에서 17대로 5대 추가 확충했으며 이에 따른 인력도 10여명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서보 향상된 대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현직경찰들이 직접 만든 수사 지침서 나왔다

### 여수경찰 '실무수사 교양집' 폐내 배포

여수경찰이 경찰관들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알기 쉬운 수사실무 교양집을 펴냈다.

300쪽 분량의 수사교양집은 지난 7월 부임한 김재병 서장이 공정한 수사절차로 인권확대를 꾀하고자 일선 수사부서 직원들에게 맡겨 3개월만에 탄생했다.

집은 전남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 모든 수사부서와 일선 파출서까지 배포,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김재병 서장은 "이번 수사 교양집의 발간으로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억울한 사안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친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고구마 캐고 갓김치 담고 재밌어요"

여수 돌산 두문 체험장

초·중생들 발길 줄이어

정보화마을 활용화를 위해 개설한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두문 이촌체험장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진남초등학교 학생 70명과 여수중학교 학생 300명이 이곳을 찾아 고구마 캐기와 돌산갓김치 담그기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손으로 직접 고구마를 캐며 농촌,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는 체험을 했다.  
농·어촌체험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돌산갓김치 정보화마을(061-690-2989)에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고구마캐기 체험비는 5000원으로 본인에게는 것은 가져갈 수 있다.

여수시 정보통신과 김상우 담당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염색체 험과 비누만들기, 갓김치 담그기 등 실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체험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백운산 학술림 서울대 양도 주민 의견수렴 신중히 결정"

### 김황식 총리 밝혀

김황식 국무총리가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를 만나 백운산 소재 남부 학술림의 서울대 무상 양도에 대한 지역민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국유립 존치를 요청했다.

또 우 의원은 국무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주관해 앞으로 부처간 논의와

정에서 광양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광양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광양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우윤근 위원장은 지난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11일 이후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접촉에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하는 등 대정부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소박한 차꽃 축제 내일 개막

### 한국차박물관 야외무대서

'제5회 소박한 차꽃 축제'가 22일 한국차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전남 차연구회와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친환경 유기농 보성녹차와 밭효차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차인들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밭효차 및 화차시음,

염색 체험, 세계차 전시 등이 열리며 자랑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피는 차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만나 미주보고 있어 '실화상봉수'(實花上逢樹)라고 한다. 다섯 장의 하얀 꽃잎을 피우는 차꽃은 쓰고(苦)·달고(甘)·시고(酸)·짜고(鹹)·떫은(澀) 오미(五味)를 지니고 있어 인생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부취재본부=선근자기자 sun@

##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주차장용지·이주주택지·협의주택지

전국 혁신도시 투자전문

###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3153-4242  
010-2609-5888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 현대공인중개사

####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 적합)

광산구 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 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지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9,48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기건물신축부지적합)

회현동, 광주1동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520㎡(460평) 3.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원

▶ 풍동, 지상4층 보증금 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원

▶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회현동, 4층건물, 월류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 9천 월400만원 매매가 5억8천만원

▶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 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 8억

▶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 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 나라공인중개사

#### 펜션텔 매도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지 : 10980㎡, 임야 : 13937㎡

• 지상 23평형 3동, 케모아 10평형 17개동, 관리동 1, 각각 독채형 주거장면밀·수려한한자·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 많음, 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 모델 매도